

여야 3당 국회 정상화 협상 또 결렬

원내대표 회동 합의 불발

민주 “합의 노력” 한국 “합의처리”

패스트트랙 안전처리 이견

여야 주요정당이 2일 장기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나섰으나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못 들려 죄송하다”

면서 “서로 또 연락하면서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애초 이날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6월 임시국회를 단독 개원하겠다고 못박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이렇게 파행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사과라도 하는 부분에 대해 진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나 “다시 만나거나 접촉하는 것은 계속 노력하겠다”며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원내대표도 “국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되고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함에도 그럴

게 되지 못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한국당과 민주당이 여전히 입장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 중간에서 어떻게든 해보려 했는데 안 됐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최종 합의문 작성 직전까지 논의를 진전시켰지만 마지막 문구 조정을 놓고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대 쟁점으로 거론된 선거제 개혁입법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 대한 유감 표명을 놓고는 입장차를 좁혔지만, 해당 안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합의의 처리를 주장한 한국당과 합의에 노력한다는 민주당 입장 사이에서 최종 절충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패스트트랙 유감 표명을 포함해) 대충 내용까지 다

정리가 됐는데 마지막 문구 조정 때문에 합의가 안 됐다”면서, 패스트트랙 안전에 대한 합의 처리 문구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여야 3당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일단 발함에 따라 당장 다음날부터 자동 소집되는 6월 임시국회는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시급한 민생입법 논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르면 3일 추가 회동을 갖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막판 난항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이해찬 대표, 장관 18명과 ‘텔레이 오찬’

내일부터...현안 청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잠시 미뤄던 18개 정부 부처 장관들과의 오찬 회동을 오는 4일부터 진행한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첫 오찬 행사로 4일 낮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난다. 당에

해왔지만 국무위원들을 한꺼번에 만나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과제와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각 부처별 건의 사항과 당의 역할에 관해 국무위원들의 격의 없는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게 텔레이 오찬을 시작하게 된 계기다.

이 대표가 임기 초반부터 당정정간 정책 협의에서 ‘당 주도성’을 강조해온 만큼 이 대표가 오찬을 계기로 ‘정책력’을 강화할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을 시작으로 5일 외교·통일·국방부, 7일 농림축산식품·환경·국토교통·해양수산부, 25일 법무·행정안전부 장관과 각각 오찬을 진행한다. 애초 지난달 30일 첫 번째 일정으로 예정됐다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연기된 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통신·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오찬은 오는 19일로 다시 잡혔다. /연합뉴스

장관들과의 텔레이 오찬은 당에서 먼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취임 이래 이낙연 국무총리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매주 만나는 등 고위 당정정 체계를 유지

해왔지만 국무위원들을 한꺼번에 만나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과제와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각 부처별 건의 사항과 당의 역할에 관해 국무위원들의 격의 없는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게 텔레이 오찬을 시작하게 된 계기다.

이 대표가 임기 초반부터 당정정간 정책 협의에서 ‘당 주도성’을 강조해온 만큼 이 대표가 오찬을 계기로 ‘정책력’을 강화할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을 시작으로 5일 외교·통일·국방부, 7일 농림축산식품·환경·국토교통·해양수산부, 25일 법무·행정안전부 장관과 각각 오찬을 진행한다. 애초 지난달 30일 첫 번째 일정으로 예정됐다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연기된 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통신·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오찬은 오는 19일로 다시 잡혔다. /연합뉴스

김대중 평화캠프

전국 20여 단체 600여명

목포·신안 하의도서 열려

김대중 평화캠프가 지난 1일부터 이틀간 목포와 신안 하의도 등에서 전국 20여 개 평화·인권단체 관계자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로 6회째인 이번 행사는 김대중평화캠프조직위원회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추진한 것으로, 전남도·신안군 등의 후원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민주·인권·평화의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날에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람을 비롯,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가는 답사, 근대역사문화공간 탐방, 평화버스킹, 김대중 평화콘서트 등의 행사가 열렸다. 다음날에는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하의도 섬을 답사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대중평화캠프 조직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목포 및 신안군 하의도에서 ‘김대중대통령 서거 10주기 2019 김대중 평화캠프’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하의도 주민들과 함께 하는 평화의 밤 콘서트, 김대중 대통령 생가 방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람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민경욱 ‘골든타임 3분’ 언급 논란...여야 4당 비난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참사를 두고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의 이른바 ‘골든타임 3분’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일제히 비난하고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헝가리 유람선 참사로 온 나라가 비탄에 빠진 가운데 민대변인이 ‘골든타임은 3분’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정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한국당이 연이은 망언과 실언으로 국민께 고통과 상처를 주고 있는 가운데 이재정 당의 대변인까지 국민의 마음을 헤집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경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의 역대급 막말 퍼레이드는 오늘도 경신 중”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더 참혹하게, 더 잔인하게, 더 비정하게. 이런 ‘저급한 감수성의 소유자’가 국회의 원이라는 사실이 참담하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민중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은 일관 열면 막말, 실언을 쏟아낸다. 정치에도, 국민 정서에도, 재난구조에도 도움이 안 된다. 제발 입 좀 닫고 가만히 있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재난 상황에 대한 일말의 공감능력이 없고, 더군다나 국민적 슬픔을 정쟁거리로 삼고자 한 악의적인 의도는 끔찍하다. 특히 세월호 참사 때와 다를 바 없는 인식과 태도에 국민들은 경악 그 자체”라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추가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대변인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반인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구조대를 지구 반 바퀴 떨어진 헝가리로 보내면서 ‘중요한 건 속도’라고 했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 최소화돼야”

“인구TF서 정년연장 문제 논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의 부담능력, 시장의 수용 측면이 꼼꼼하게 반영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작아지고 명

목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일용직 등 민갑업종에서 일자리가 밀려나는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한 것도 감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년 연장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며 “인구구조개선 대응 TF 산하 10개 작업반 중 한 곳에서

정년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년연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연간 80만명, 진입하는 사람이 40만명임을 고려하면 그 같은 효과는 완화될 것이고 청년층에 영향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두고는 중요한 것은 비율이나 수치가 아닌 증가속도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내놓

은 중기 재정계획에서 2022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2%가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며 “2019~2023년 5개년 계획을 짜면 그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도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40%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면서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는 증가속도와 악화 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신속 통가를 촉구하면서 “미세먼지와 경기하방 선제대응 추경이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며 6월 초순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유시민·홍준표 유튜브 공동방송 ‘토론배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3일 공개 ‘토론 배틀’을 벌인다.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TV홍카플라’의 유튜브 공동방송을 통해서다. 진보와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주자인 동시에 각 진영을 대표하는 논객이자 유튜브 방송 진행자인 두 사람이 펼치는 ‘맞장 토론’인 만큼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동방송의 이름은 ‘알릴레오’와 ‘홍카플라’를 조합한 ‘홍카레오’로 명명됐다. 방송 녹화는 3일 오전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서 이뤄지며, 완성된 영상은 같은 날 오후 10시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TV홍카플라 계정을 통해 동시 공개된다.

공동방송은 극단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 두 방송이 공통 주제를 갖고 대화를 해보는 취지로 유 이사장 측이 홍 전 대표 측에 먼저 제안해 성사됐다. /연합뉴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3일 공개 ‘토론 배틀’을 벌인다.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TV홍카플라’의 유튜브 공동방송을 통해서다. 진보와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주자인 동시에 각 진영을 대표하는 논객이자 유튜브 방송 진행자인 두 사람이 펼치는 ‘맞장 토론’인 만큼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동방송의 이름은 ‘알릴레오’와 ‘홍카플라’를 조합한 ‘홍카레오’로 명명됐다. 방송 녹화는 3일 오전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서 이뤄지며, 완성된 영상은 같은 날 오후 10시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TV홍카플라 계정을 통해 동시 공개된다.

공동방송은 극단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 두 방송이 공통 주제를 갖고 대화를 해보는 취지로 유 이사장 측이 홍 전 대표 측에 먼저 제안해 성사됐다. /연합뉴스

임야 단독섬

- ▶ 바로삽니다
- ▶ 지분물건 환영
- ▶ 단, 맹지는 매입 불가

문의. 010-6834-74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교 환

- 순천 낙안 민속마을 저수지 옆 팬션 대지 2180㎡ 팬션3동 372㎡ 8억
- 광산구 송정동 상업지 311㎡ 집 132㎡ 은행 9천 매도 3억천

투자·매도·교환

- 서구 마북동 대지 384㎡ 투자에도 좋은 5억8천
- 광산구 본덕동 그린벨트 자연녹지 1465㎡차량진입가 1억6천
- 광산구 쌍암동 대형빌딩 중의 2층 25㎡ 과일점 전문점 시설완비 1억5천
-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나주시 영산포역 부근 상업지 1025㎡ 위치좋은 6억3천
- 북구 두암동 4차선 950㎡ 병·의원 등 적합 18억7천
- 남구 금성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중주택 4억4천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상 가 건물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착 토지 155㎡ 건물 263㎡ 4억
- 충창로 4기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 25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 급 물 건

- 영광 영산면 바닷가 땅 3563㎡ 팬션2동·식당 건평 700㎡ 은행 3억 매도 6억5천
- 무안군 온남면 바다인접 약 9400㎡ 전원주택·요양시설 적합 3억3천
-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2346㎡ 팬션·노인시설 등 적합 4억7천
- 김경가 50%. 해남군 산이면 금굴리 대지 17518㎡ 주택 2 감정 21억1600
- 남평읍 드들강 모퉁 땅 2741㎡ 건평 1748㎡ 식당과 28실 17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신안군 암태면에서 7분거리 독립성 56233㎡ 독립생활적합 3억6천
- 목포 옥암동 여관 대지 439㎡ 건평 989㎡ 객실 27 은행 4억 매도 6천만원
- 담양군 무정면 땅 3850㎡ 별장 147㎡ 조경완벽 팬션좋은 7억2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임야 매매

- ▶ **화순군 도곡면 신덕리 산 55, 55-1, 54번지 20,493㎡ 17억**
- ▶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산95 26,475㎡ 15억**
- ▶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산 95-3 25,000㎡ 13억**

010-8443-5165

개인 직거래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1.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실사조사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상대지주권인)인사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부지를 양분해있다(상대지주권인)인사
2.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삽자가 가능하신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사업을 위탁 받으신 분
 - 태도 당국에서 필요하신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3. 태양광 영업 인제 모집
 - 태양광 10년이상 유행하신 분
 - 태양광 10년이상 영업 경험하신 분
 - 태양광 개발사업 운영하신 분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부 문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무지
다 스 코	전략기획	전략기획	· 사업대상 분석 가능지, 경력 10년 이상
	신사업개발	영업	· 태양광발전소 영업
세 라 코	수출관리	영업	· 판매영업 경력자
	사업관리 (영업/마케팅)	영업	· 판매영업 경력자 · 영업 관행과 전경지 이해

- 담당직: 영업 09330-233, mca@dascok.com, 세라코: 영업 09330-7942, jhko@seraok.com